

# “우리나라 경전철 운영 모델 만들 것”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권오철(57) 사장은 개통 2개월을 결산하는 인터뷰를 통해 “개통 후 5건의 일시 장애가 있었지만 도시철도 업계에서는 조기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라서 경전철 운영의 모델이 됐다”며 “개통이 확정된 후부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견학 왔을 정도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오철 사장과와의 일문일답

-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한 지 지난 16일로 2개월이 됐다. 경전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 사실 개통 전까지는 우려가 많았다. 영업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탈선과 같은 큰 사고도 있었고 30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장애도 있어 과연 제대로 운행할 것인가 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경전철 도입을 두고 망설이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도시철도 운영과 차량운행, 신호, 관제, 정비 등의 분야에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임원진과 간부를 배치해 영업시운전 중에 발생한 장애와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없애 나갔다. 그 결과 도시철도 업계로부터 초기에 안정화를 이뤄냈다.

- 개통 초기 5건의 장애가 발생했는데?

△ 어렵게도 몇 번 개통이 연기되는 과정에 운영사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워 승객을 직접 태우는 과정이 생략된 채 개통됐다.

경전철은 무인운전 특성에 따라 모든 것이 센서로 작동한다. 실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이 문에 기대거나 문을 밀치는 일이 생기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 역시도 차량제작사인 로템과 기술 교환을 통해 장애요인을 해소시켰고 그 후로는



권오철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이 개통 2개월을 맞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일시 장애 딛고 조기 안전운행정착 “내년 고객편의 극대화 노력하겠다”

단 한건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부산-김해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 예측보다 승객이 턱없이 모자라는 점이다. 운영사 대책이 있나?

△ 운영사는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승객을 잘 모시는 것이 본래 업무이다.

우리 운영사도 작자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승객 수요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 직원들에게 공모했다. 이 공모에서 약 50여 건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 중에서 우리 운영사가 가장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즉시 반영하고 부산시와 김해시, 시행사의 협조가 필요한 아이디어는 그 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국내 최초 경전철 전문 운영사로서 느끼는 소회와 운영사로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특성이 있다면?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는

서울과 대구, 의정부, 김포 등지에 건설 중인 경전철 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올해 9월 개통이 확정된 후 운영사를 다녀간 지역과 단체만 31곳에 이르고 인원은 400명이 넘는다.

이분들은 우리의 경전철 운영을 보고, 안전성에는 확신을 얻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장 견학 후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대해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 개통 첫 해인 올해를 ‘안전정시운행 정착의 해’로 삼고 있다. 다행히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고객편의 극대화의 해’로 삼려고 한다.

승객 수요 최대화를 고객만족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

부산시민과 김해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허균 기자>